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3_05

ARS+CATI

제30차 ARS조사

제15차 CATI조사

www.flowerresearch.com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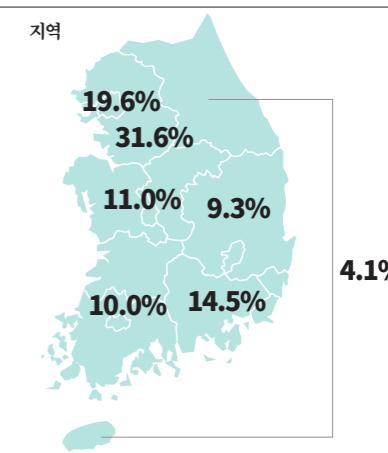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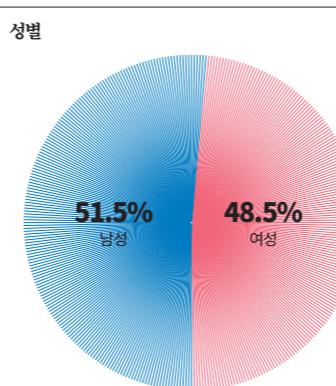
보고서

ARS & CATI

ARS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5% [총 통화시도 28,650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24일 ~ 3월 2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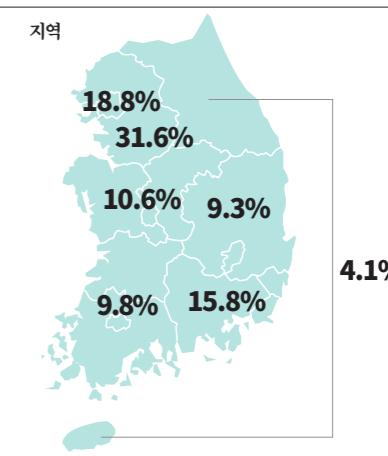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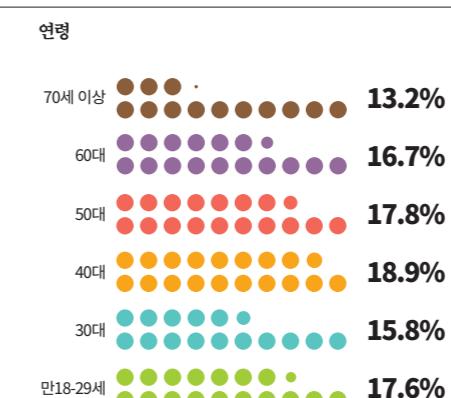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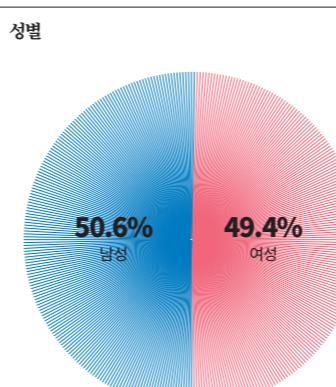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조사인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성별					
남성	517	51.5	498	49.6	0.96
여성	487	48.5	506	50.4	1.04
연령					
만18-29세	133	13.2	166	16.5	1.25
30대	132	13.1	151	15.0	1.14
40대	195	19.4	183	18.2	0.94
50대	212	21.1	196	19.5	0.92
60대	182	18.1	170	16.9	0.93
70세 이상	150	14.9	138	13.7	0.92
지역					
서울	197	19.6	189	18.8	0.96
인천 경기	317	31.6	320	31.9	1.01
대전 세종 충청	110	11.0	105	10.5	0.95
광주 전라	100	10.0	98	9.8	0.98
대구 경북	93	9.3	98	9.8	1.05
부산 울산 경남	146	14.5	150	14.9	1.03
경원 제주	41	4.1	44	4.4	1.07



CATI 조사개요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24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2월 28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5.5% [총 통화시도 6,607명]
조사기간	2023년 3월 24일 ~ 3월 2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인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24	100.0%	1,024	100.0%	1.00
성별					
남성	518	50.6	508	49.6	0.98
여성	506	49.4	516	50.4	1.02
연령					
만18-29세	180	17.6	170	16.6	0.94
30대	162	15.8	153	14.9	0.94
40대	194	18.9	189	18.5	0.97
50대	182	17.8	199	19.4	1.09
60대	171	16.7	172	16.8	1.01
70세 이상	135	13.2	141	13.8	1.04
지역					
서울	192	18.8	193	18.8	1.01
인천 경기	324	31.6	326	31.8	1.01
대전 세종 충청	109	10.6	108	10.5	0.99
광주 전라	100	9.8	99	9.7	0.99
대구 경북	95	9.3	100	9.8	1.05
부산 울산 경남	162	15.8	153	14.9	0.94
경원 제주	42	4.1	45	4.4	1.07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값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값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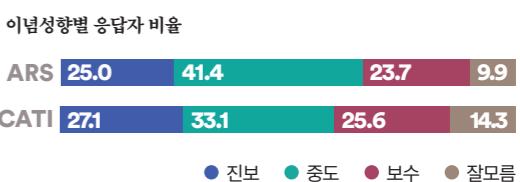
국정지표

ARS & CATI / CATI

정당지도

국정운영 평가

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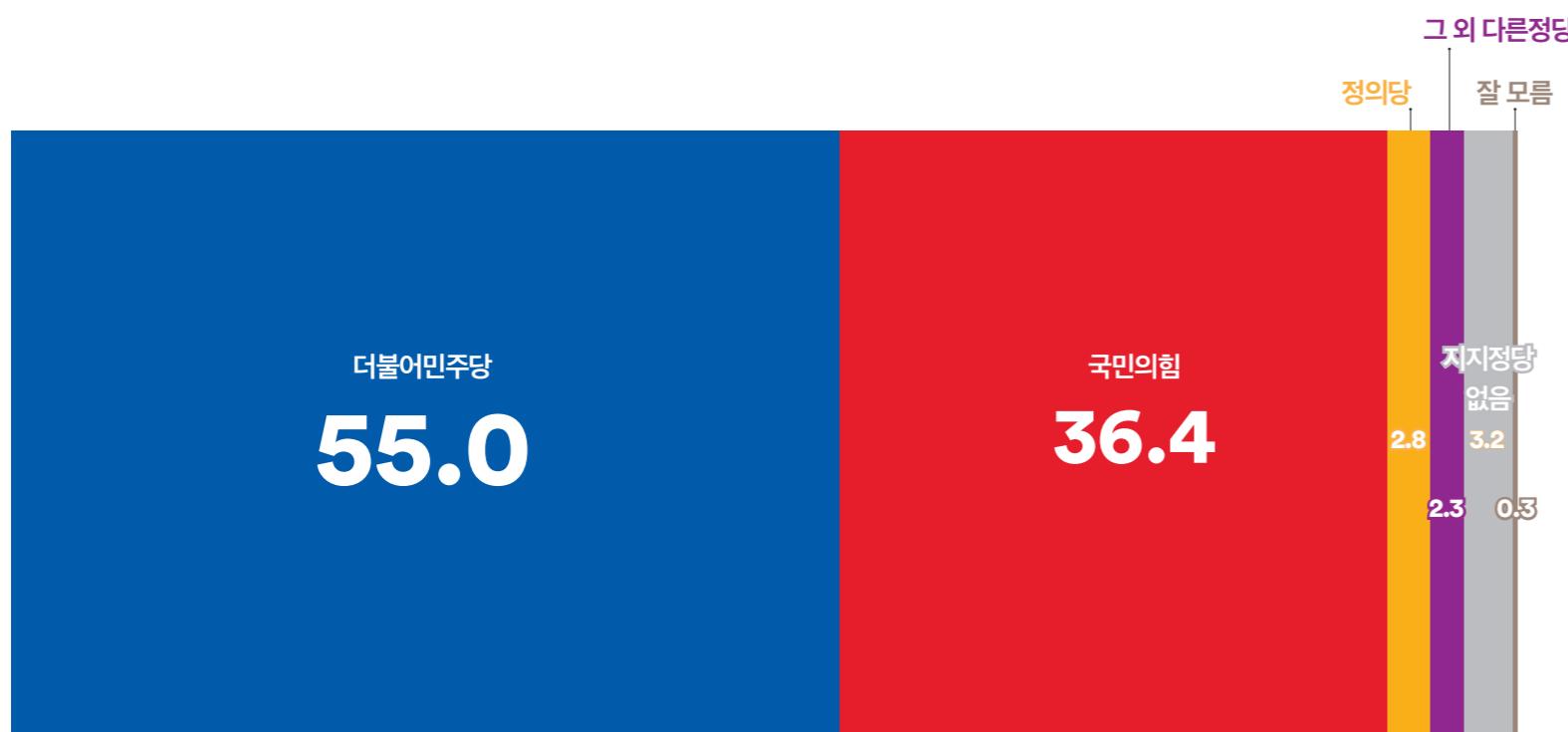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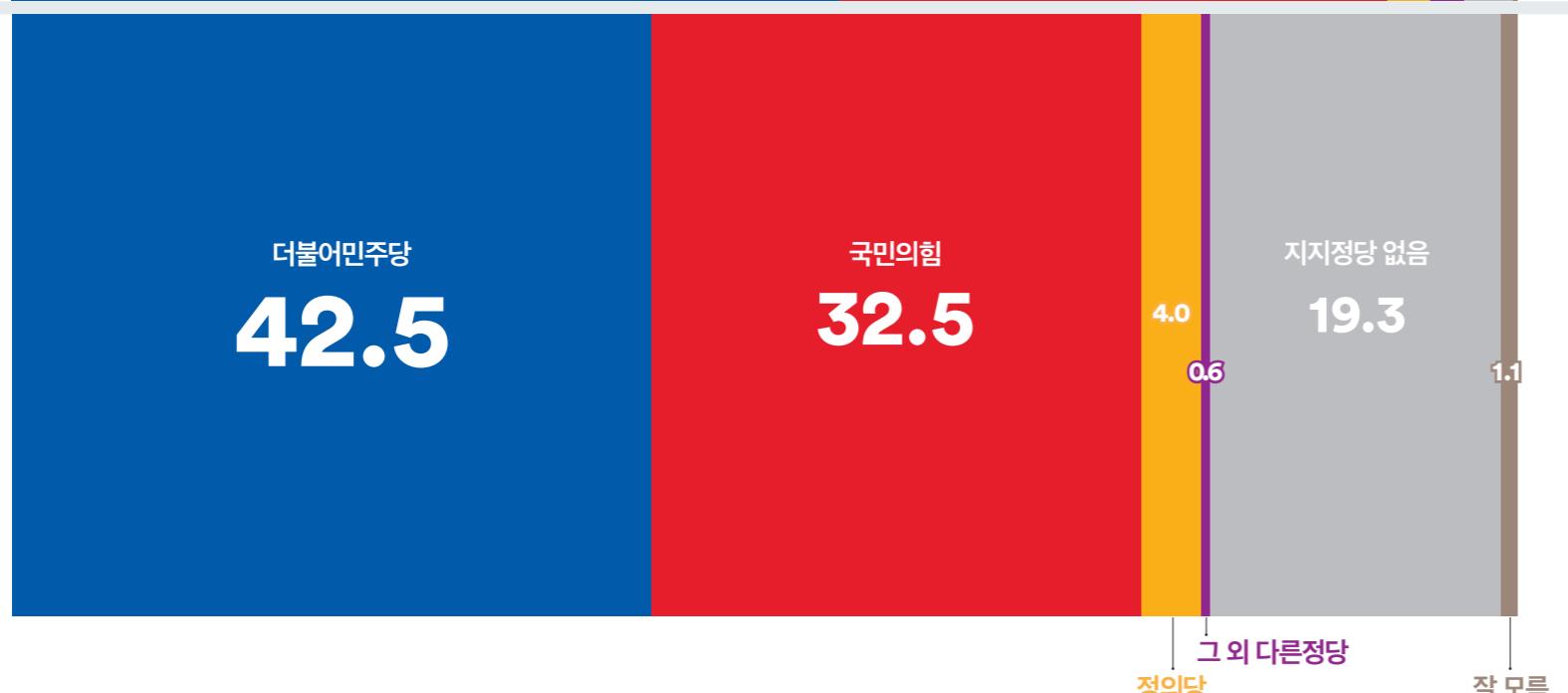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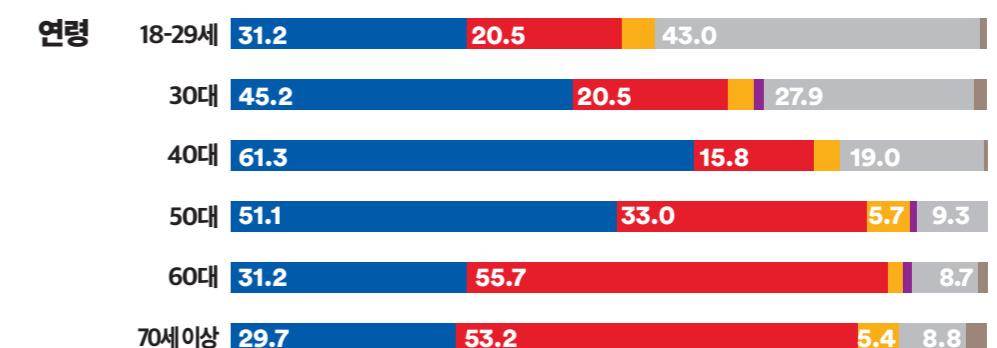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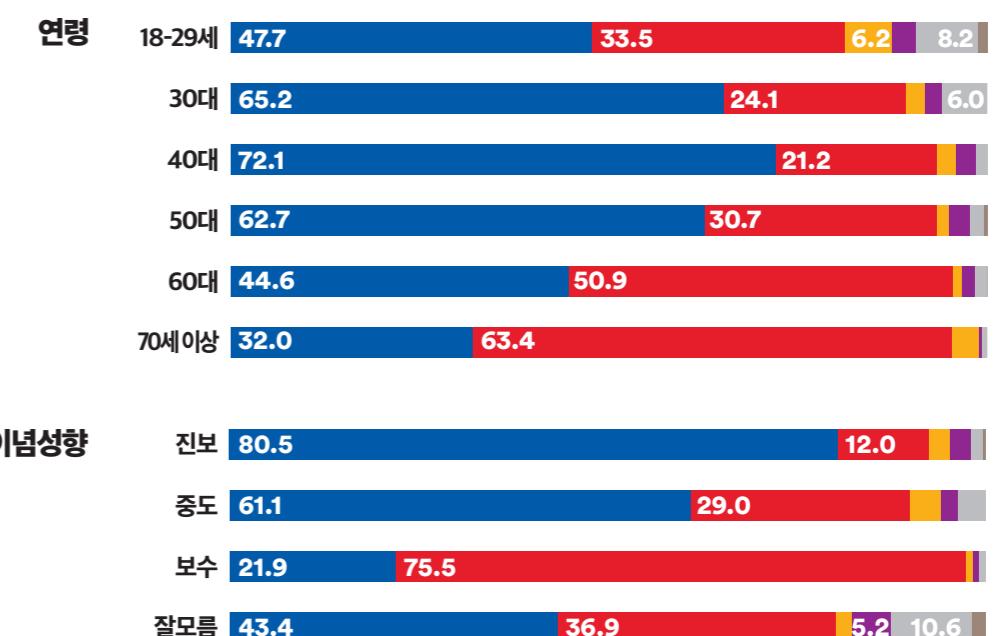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5%p 상승, 국민의힘 0.7%p 하락(격차 18.6%)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7%p 하락, 국민의힘 2.5%p 하락(격차 10.0%)

두 조사 모두 양당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으며 진보층·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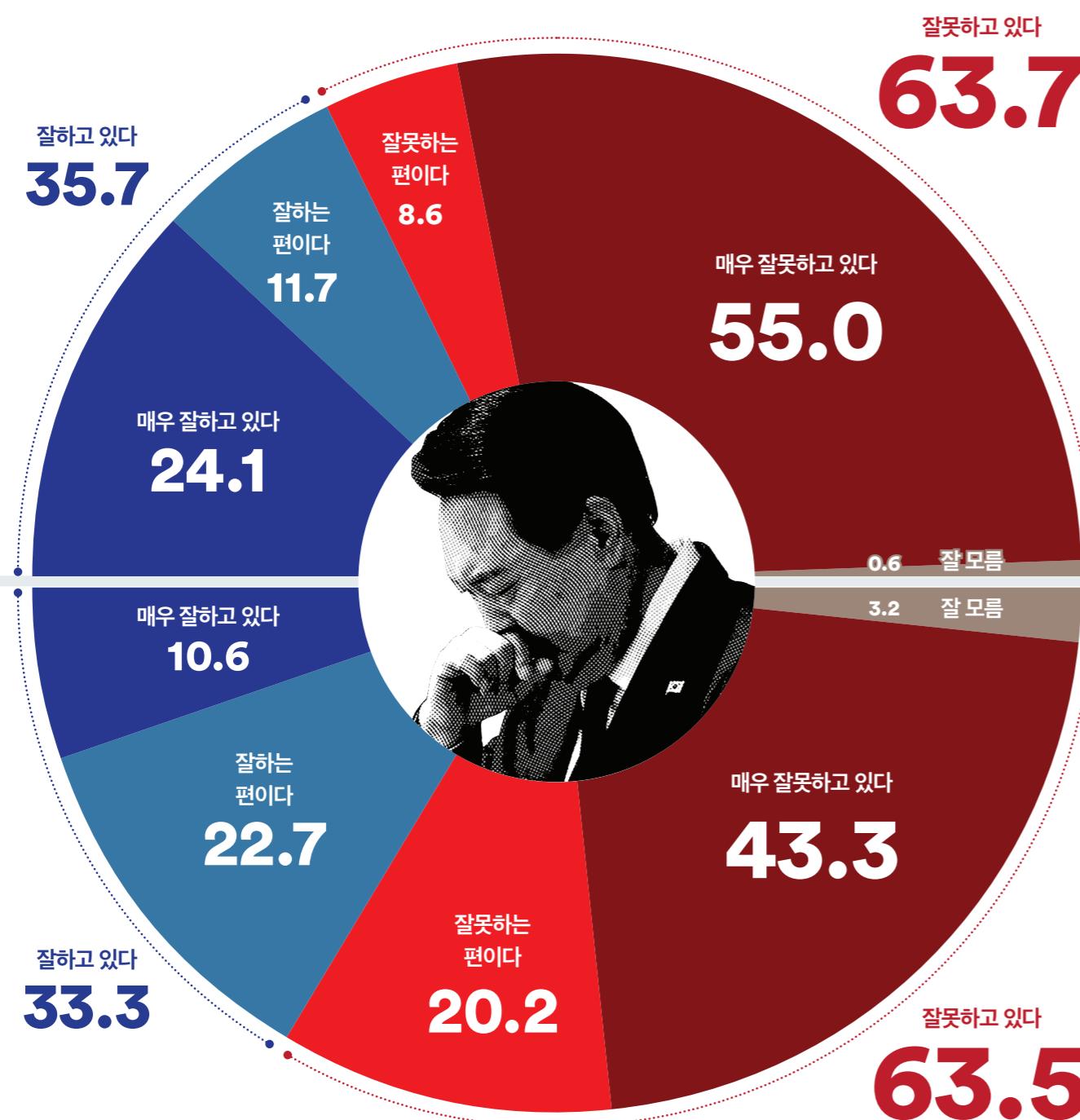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0.3%p 증가, 부정평가 0.1%p 감소 (격차 28.0%)

지난 CATI 조사 대비 부정평가 0.2%p 감소 (격차 30.2%)

두 조사 모두 진보층·중도층은 부정 평가 우세, 보수층은 긍정 평가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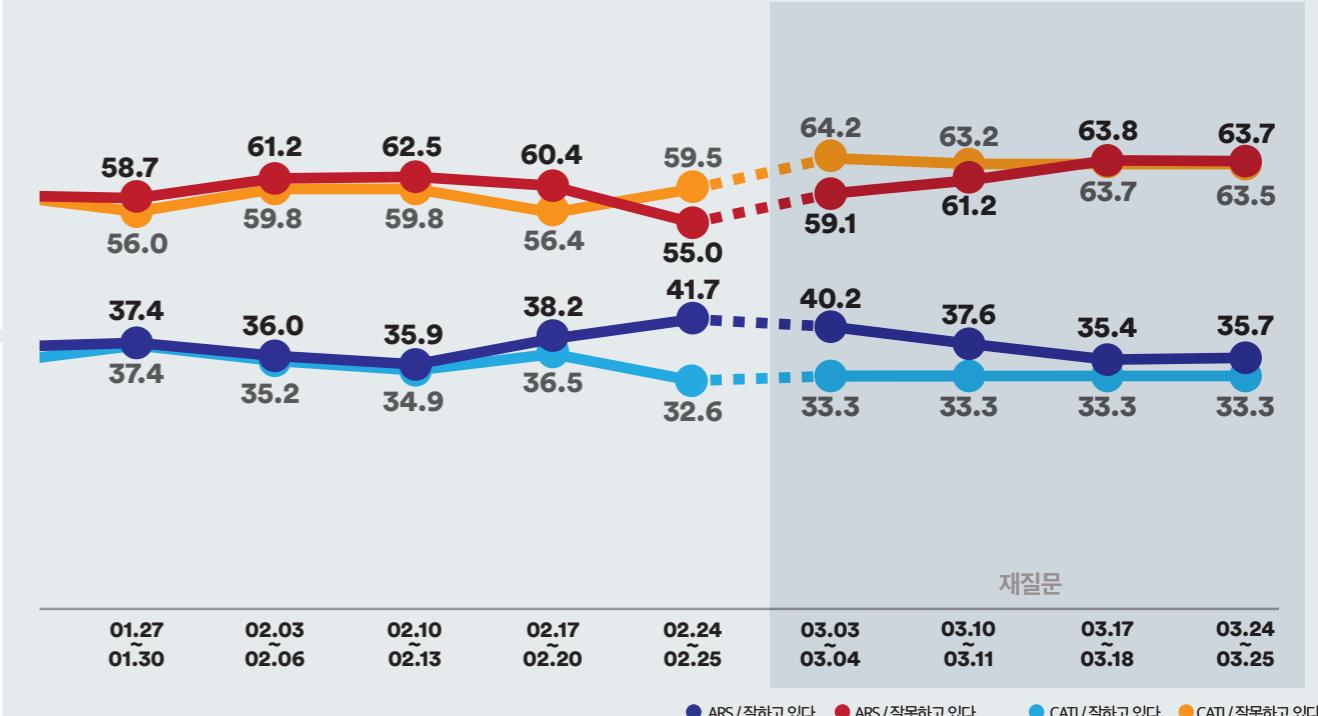
CATI

성별	남성	63.5	36.3	+0.1	36.4	62.8
----	----	------	------	------	------	------

여성	64.0	34.5	+0.5	35.0	64.5
----	------	------	------	------	------

29차 ARS조사 격차 30차 ARS조사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성별	남성	63.2	34.0	-1.0	33.0	64.6
----	----	------	------	------	------	------

여성	64.2	32.6	+1.0	33.6	62.5
----	------	------	------	------	------

14차 CATI조사 격차 15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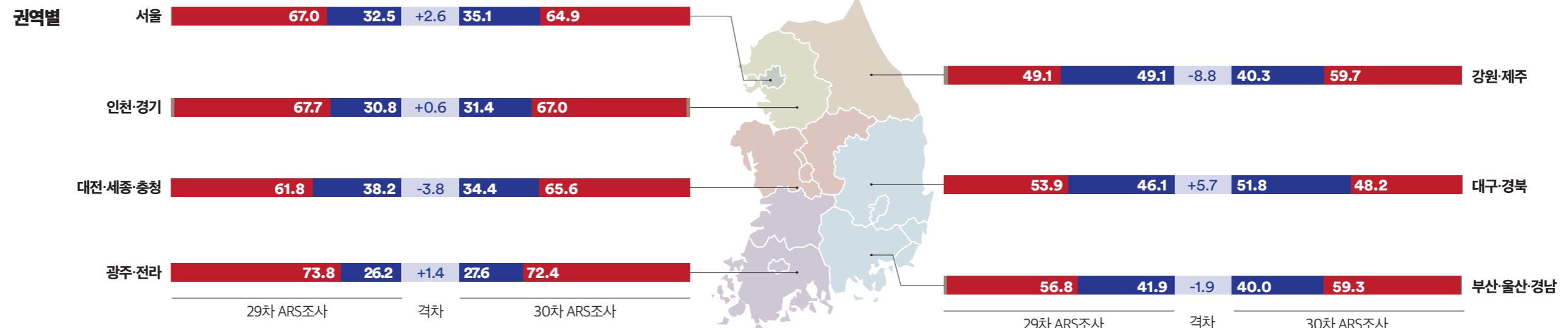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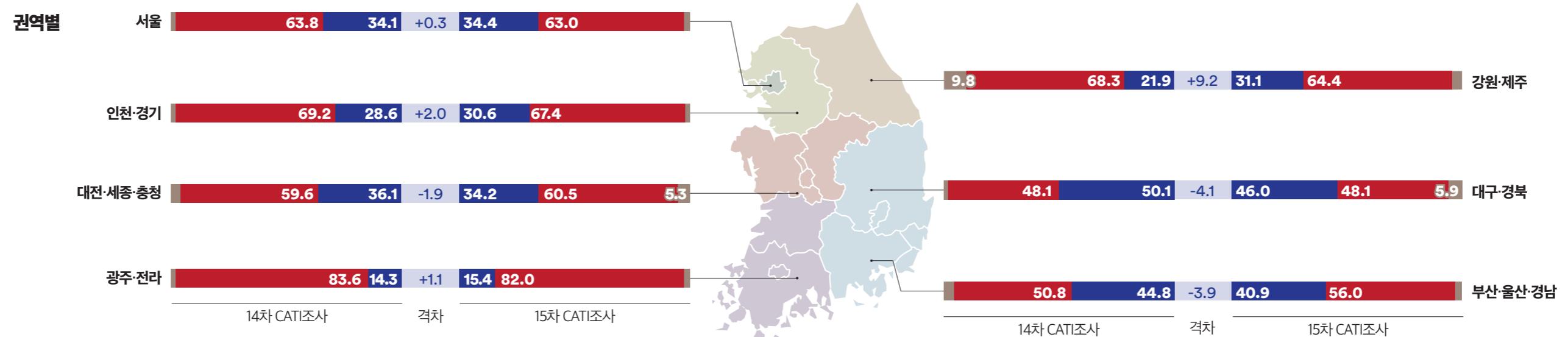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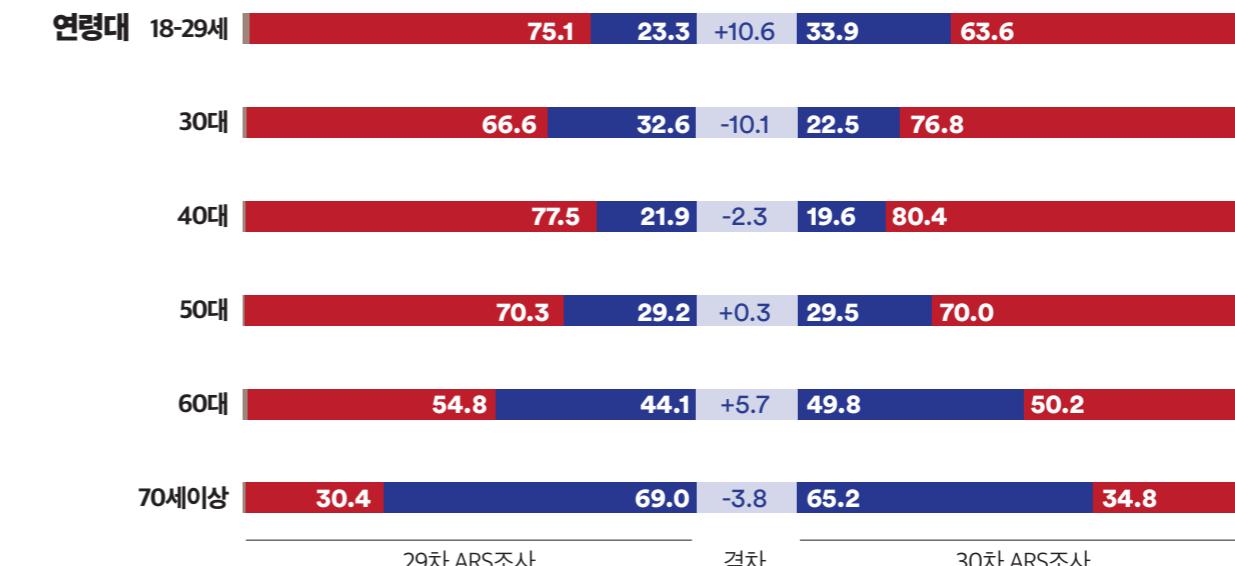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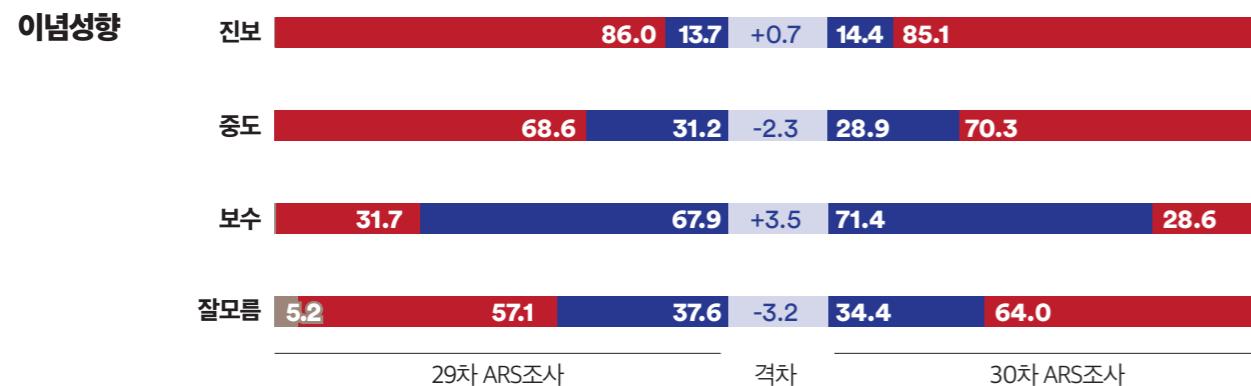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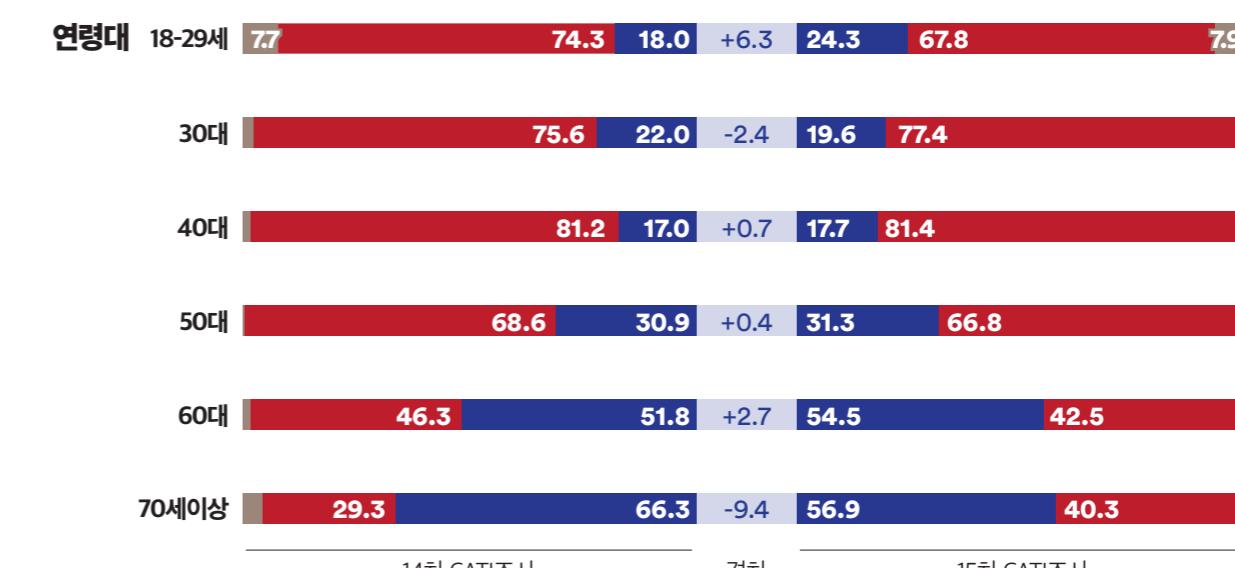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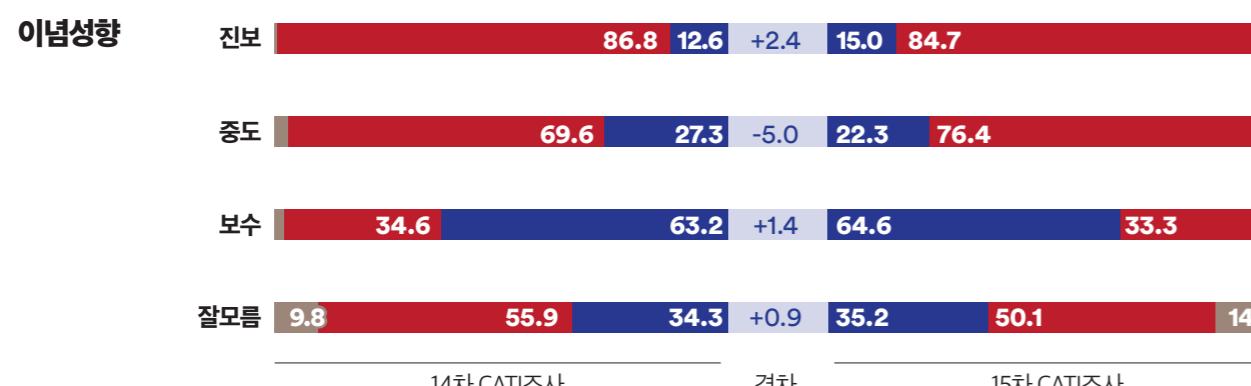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민심에 관한
ARS + CATI 조사 보고서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한일 정상회담 · 독도의날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현안 윤 정부의 대일 접근 방안

-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들
-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필요성
- 반일정서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
- 외교 책임자 총사퇴
- 일본 소부장 기업 용인 유치
-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윤 대통령은 3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먼저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이 호응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반일정서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 “용인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 정부의 대일 접근방안이 적절한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본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が 언급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논의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책임자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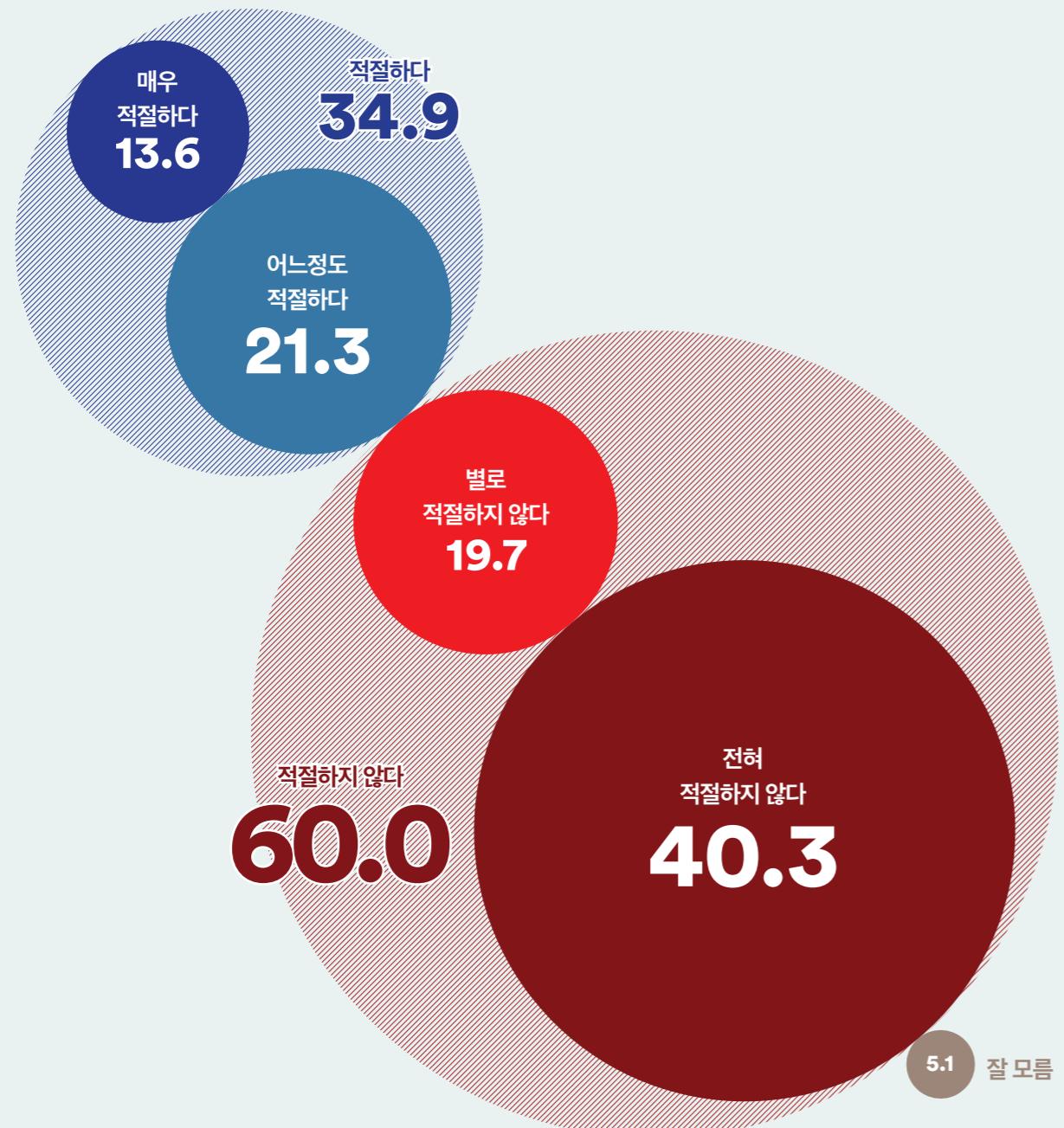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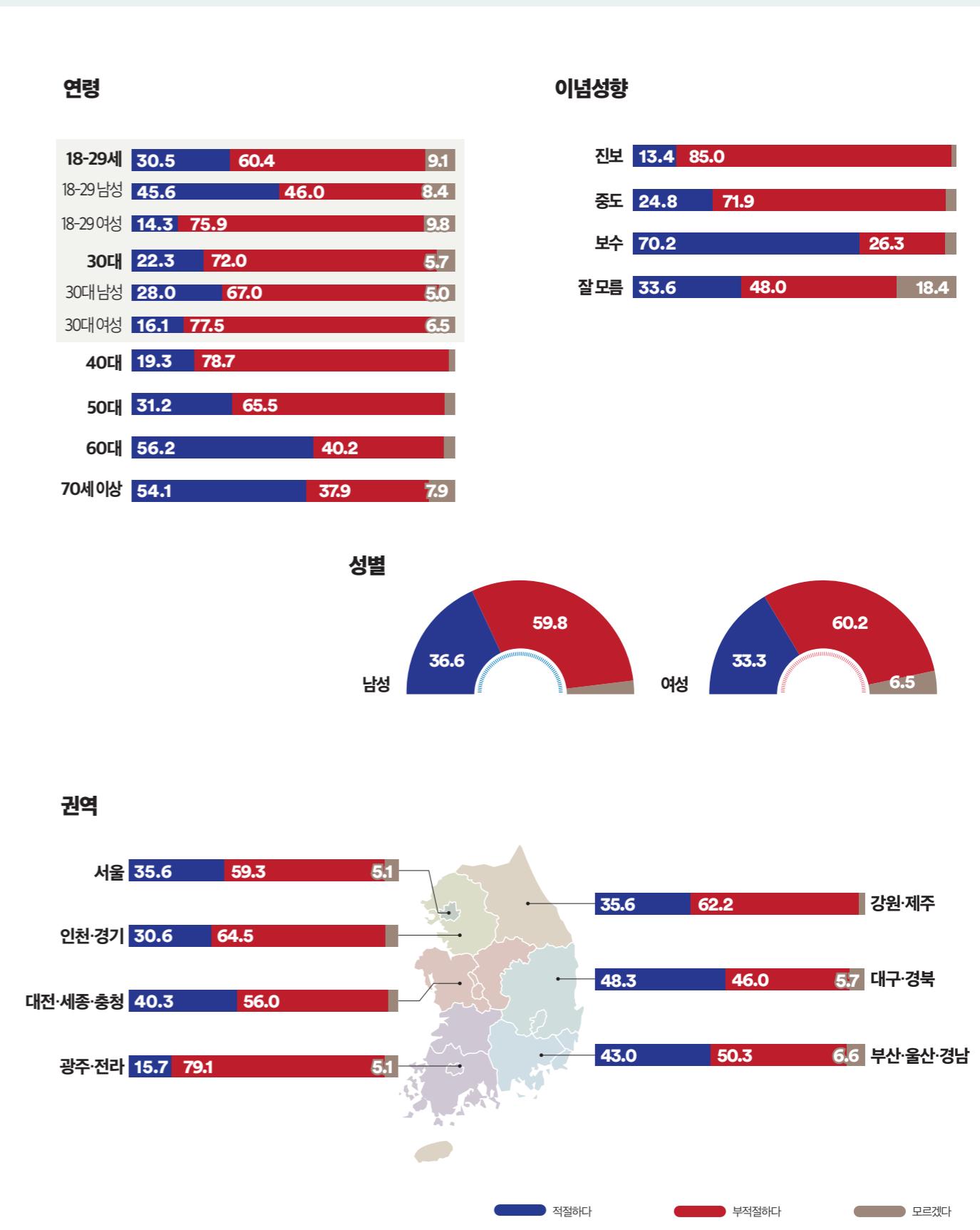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윤 정부의 대일 접근 방안

Q.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간다면 일본이 호응해 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 접근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0명 중 6명은 ‘우리가 먼저 걸림돌을 제거해 일본의 호응을 얻겠다는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앞섰으며,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부적절’ 의견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우세, 60대 이상과 보수층은 ‘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무당층(부적절 62.7%)과 중도층(부적절 71.9%)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인식 우세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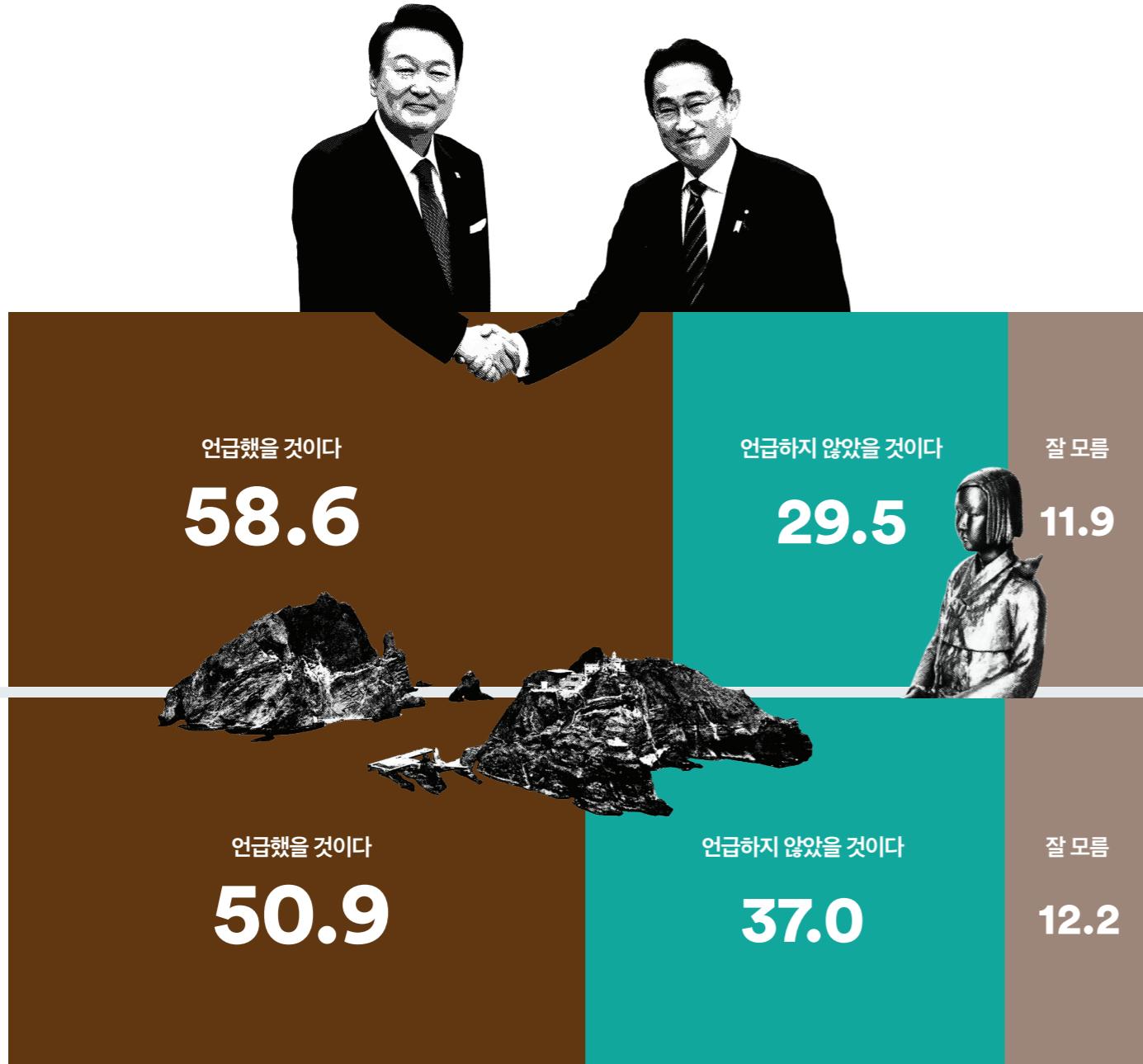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들

Q.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 간에 독도·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이 실제로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독도·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이 실제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언급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앞섰

무당층: ARS(그렇다 40.4% / 그렇지 않다 35.1%), CATI(그렇다 47.6% / 그렇지 않다 32.2%)

중도층: ARS(그렇다 59.8% / 그렇지 않다 28.8%), CATI(그렇다 54.6% / 그렇지 않다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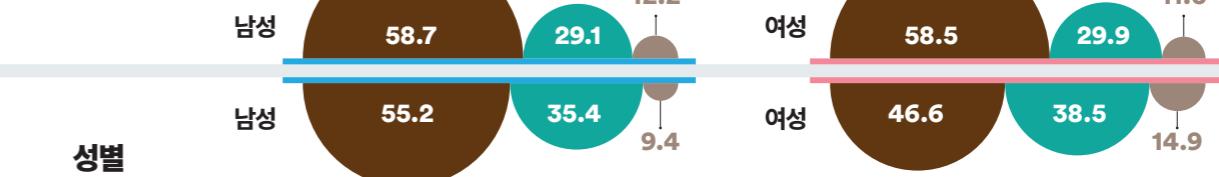
권역

서울	59.8	30.0	10.1
인천·경기	61.6	26.3	12.1
대전·충청·세종	60.0	28.9	11.0
광주·전라	59.8	27.1	13.0
대구·경북	49.6	36.2	14.2
부산·울산·경남	56.2	31.8	11.9
강원·제주	53.1	35.2	11.7

이념성향

진보	79.5	15.8	4.7
중도	59.8	28.8	11.4
보수	42.3	45.2	12.5
잘모름	39.9	30.4	29.7

성별



연령

18-29세	49.0	39.7	11.3
30대	52.9	40.6	6.5
40대	64.0	27.2	8.8
50대	55.3	32.1	12.6
60대	47.3	40.3	12.4
70세 이상	31.4	45.6	23.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7.7	27.3	4.9
국민의힘	30.2	53.5	16.3
정의당	59.9	32.7	7.4
그외 다른정당	84.2	15.8	0.0
지지정당 없음	47.6	32.2	20.3
잘모름	16.2	33.3	50.5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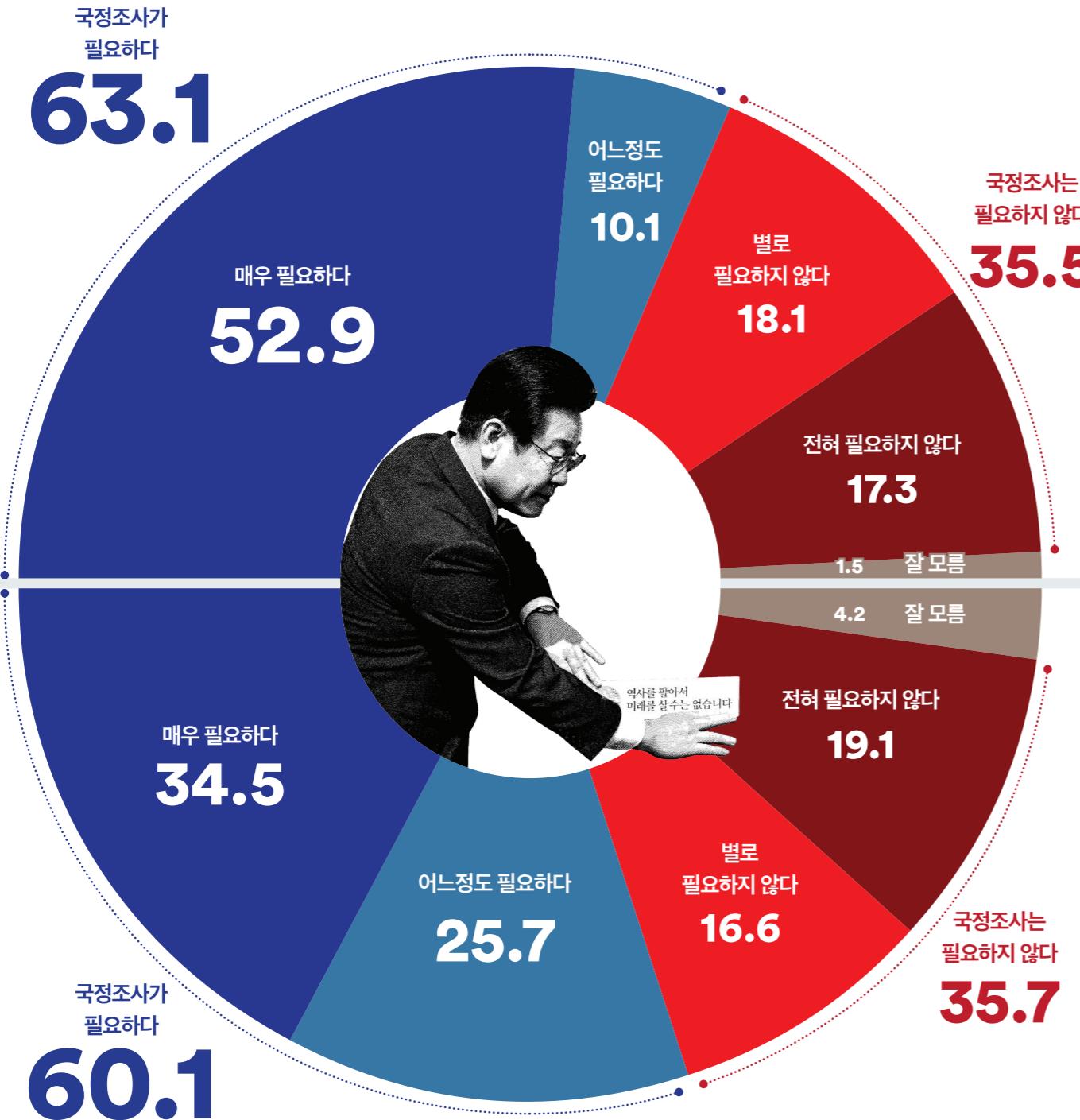
한일 정상회담 국정 조사 필요성

Q. 일본 언론이 보도한 독도 영유권,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한일 정상회담 관련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정 조사를 주장합니다.

국정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CATI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번 회담에 대한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
50대 이하 응답층은 '필요하다'는 응답 우세, 70세 이상 연령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중도·무당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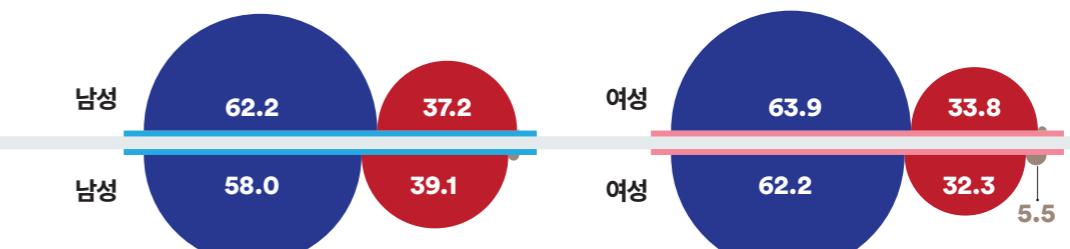
권역

서울	63.6	35.3
인천·경기	66.9	31.2
대전·충청·세종	61.2	36.0
광주·전라	76.6	23.4
대구·경북	51.4	47.9
부산·울산·경남	57.3	41.4
강원·제주	53.3	44.8

연령

18-29세	63.5	34.5
18-29 남성	59.1	39.5
18-29 여성	68.4	29.1
30대	76.1	21.7
40대	75.6	24.4
50대	69.3	29.5
60대	49.7	48.6
70세 이상	39.4	58.6

성별



성별

권역

서울	56.8	38.6
인천·경기	62.8	33.6
대전·충청·세종	60.5	38.5
광주·전라	71.1	22.6
대구·경북	54.3	41.2
부산·울산·경남	54.0	40.9
강원·제주	63.3	30.0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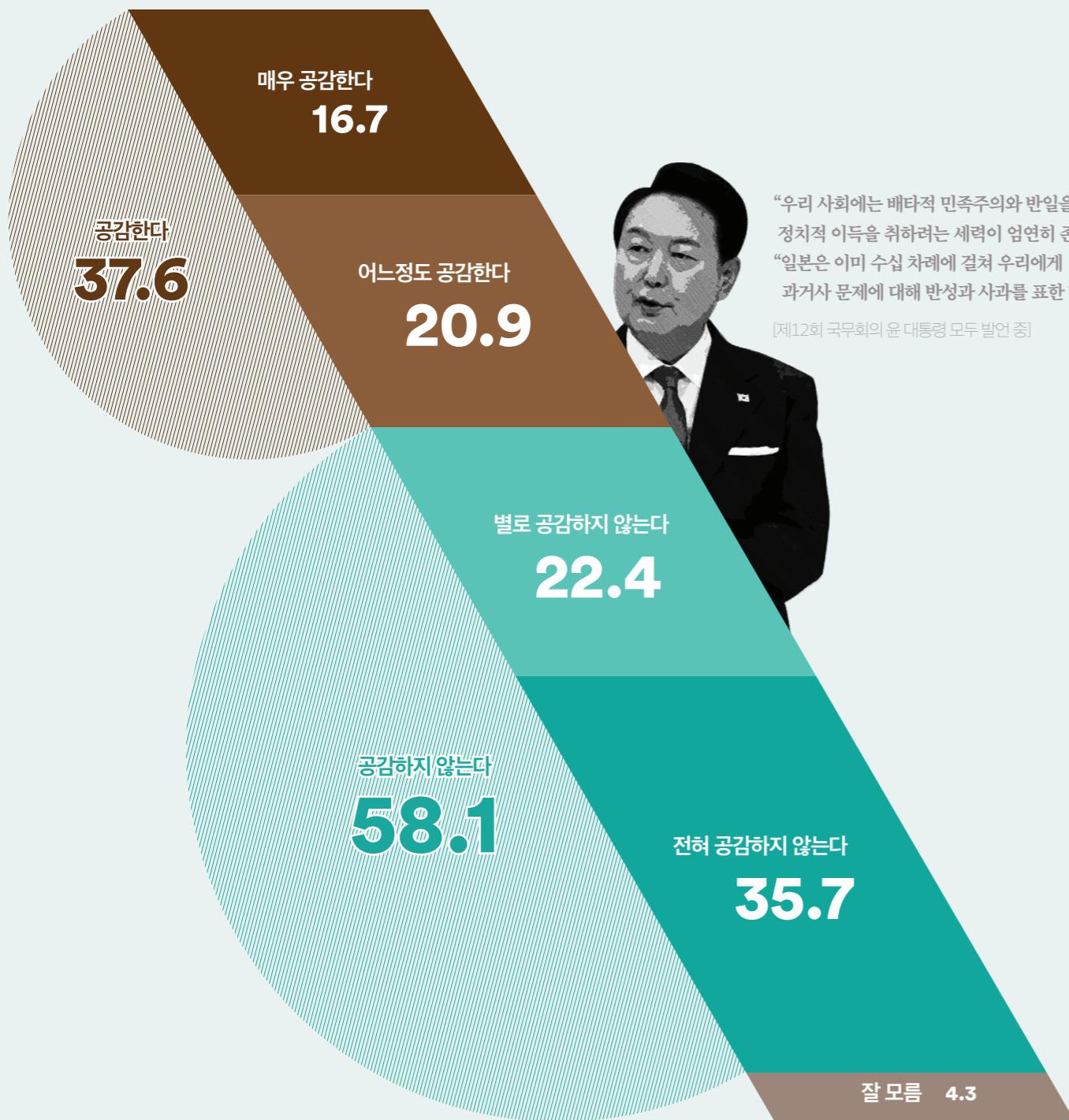
진보	84.4	14.8
중도	65.8	31.9
보수	31.6	66.4
잘 모름	54.1	26.5
		19.4

정치·사회 현안

반일 정서로 이득을 취하는 세력

Q. 윤 대통령은 한일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에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대응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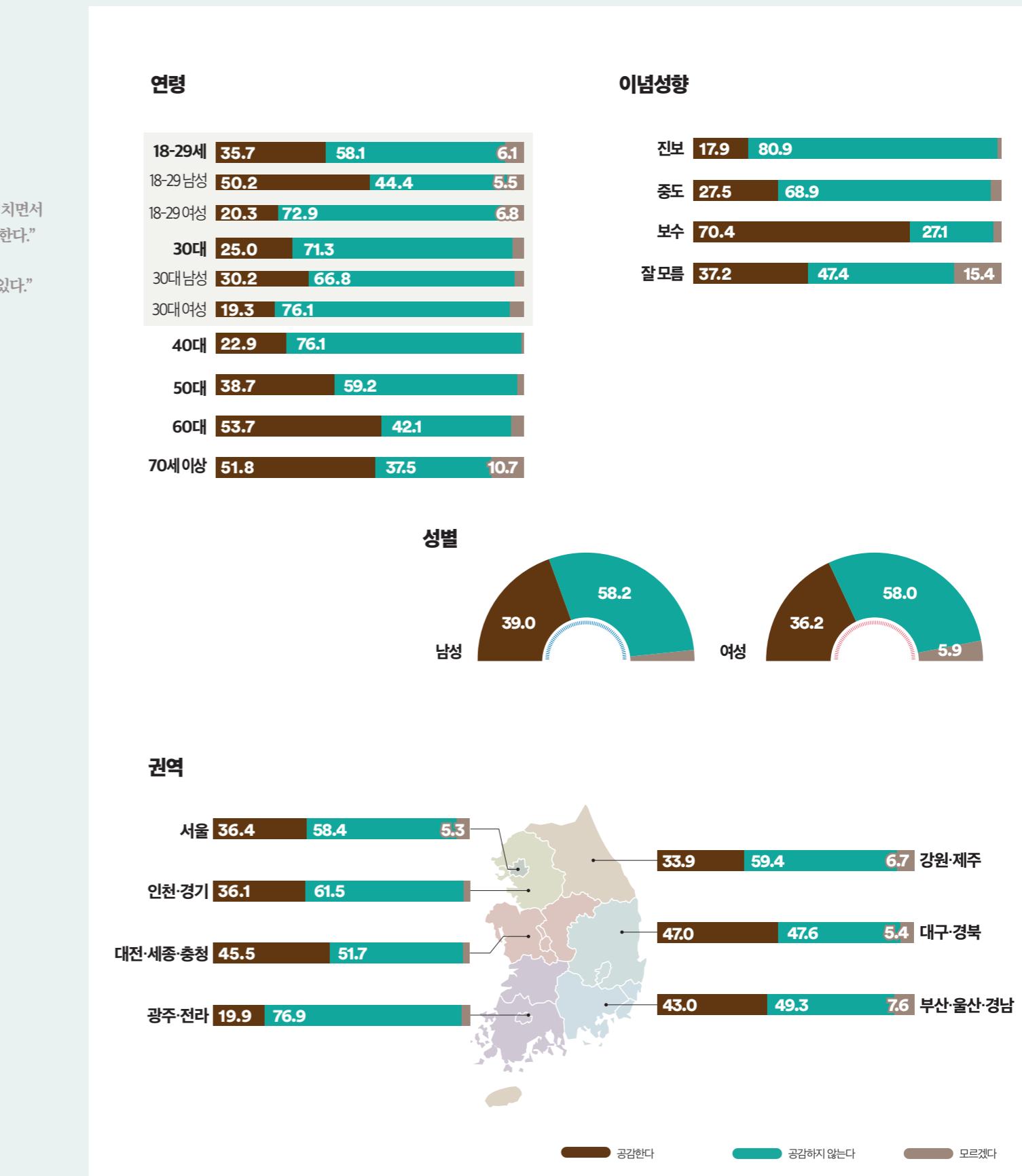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공감한다'는 응답 대비 우세(격차: 20.5%)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앞섰으며, 특히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비공감' 응답이 우세, 70대 이상과 보수층은 '공감' 응답 우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비공감 92.9%), 국민의힘 지지층(공감 83.6%)로 상반된 결과를 보임



정치·사회 현안

외교 책임자 총 사퇴

Q.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매국 외교라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차장 등 외교 책임자들의 총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과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같음
40대·50대는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 60대·70세 이상에서는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우세
무당층은 '사퇴해서는 안된다(37.7%)'는 의견이, 중도층은 '사퇴해야 한다(49.3%)' 의견이 소폭 더 많음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중]

"외교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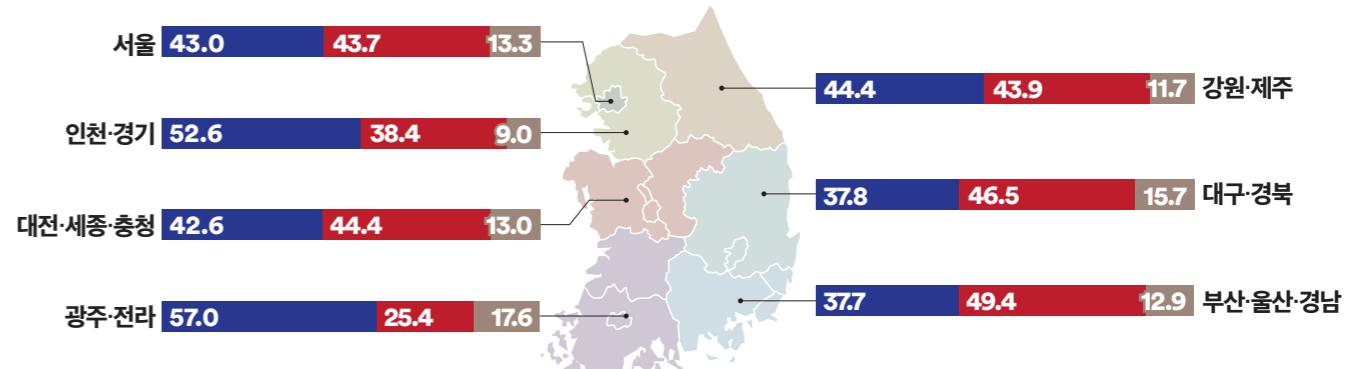
연령

18-29세	34.1	36.4	29.5
30대	50.6	36.6	12.8
40대	69.2	25.9	5.9
50대	56.7	37.4	5.8
60대	32.7	61.5	5.9
70세이상	26.3	55.0	18.7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9.9	11.5	8.6
국민의힘	9.3	85.4	5.3
정의당	59.1	27.7	13.2
그외다른정당	67.3	32.7	
지지정당 없음	31.8	37.7	30.5
잘 모름	17.7	25.0	57.3

권역



■ 사퇴해야 한다 ■ 사퇴해서는 안된다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일본 소부장 기업 용인 유치

Q. 전기차 배터리·반도체 소재·자동차 부품과 같이 우리 산업에 뿌리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일본 소부장 업체를 용인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한 다음 두 의견 중 무엇에 공감하십니까?

ARS



“한일관계의 개선은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뛰어난 제조기술과 일본 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연계되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가시화되면,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기술력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첨단 혁신기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12회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 발언]

국내업체를 육성하는 대신
일본업체를 지원하는
친일 행위

53.8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치

36.5

잘 모름

9.7

국내업체를 육성하는 대신
일본업체를 지원하는
친일 행위

51.5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조치

35.8

잘 모름

12.7

두 조사 모두 응답자 절반 이상은 윤 대통령의 일본 ‘소부장’기업 유치 발언이 ‘친일 행위’라 인식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 및 모든 성별에서 ‘친일 행위’란 응답이 앞섭

30~50대와 중도층·무당층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친일 행위’란 의견이 우세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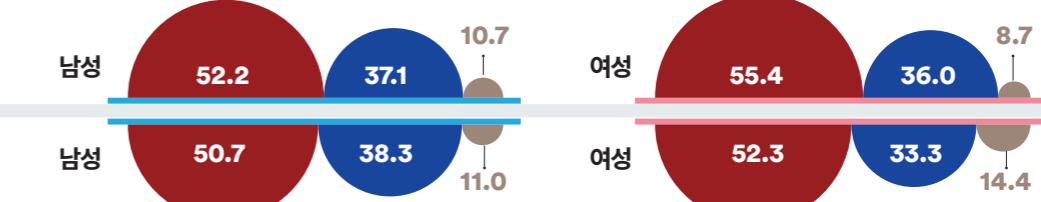
권역

서울	51.7	38.2	10.0
인천·경기	59.3	33.5	7.1
대전·충청·세종	53.7	35.9	10.3
광주·전라	55.7	33.1	11.2
대구·경북	38.7	50.7	10.6
부산·울산·경남	54.9	36.3	8.8
강원·제주	48.7	28.6	22.7

연령

18-29세	51.8	39.1	9.1
18-29 남성	45.3	45.6	9.1
18-29 여성	59.0	31.9	9.1
30대	70.2	24.1	5.7
40대	71.4		24.7
50대	62.2	30.9	6.9
60대	37.6	49.7	12.7
70세 이상	23.1	54.4	22.5

성별



성별



권역

서울	51.1	37.0	11.9
인천·경기	57.7	32.5	9.7
대전·충청·세종	46.1	39.5	14.4
광주·전라	58.6	25.4	15.9
대구·경북	41.8	46.2	12.1
부산·울산·경남	44.0	39.5	16.5
강원·제주	52.8	31.7	15.6

이념성향

진보	76.0	17.4	6.6
중도	61.0	28.5	10.4
보수	28.7	61.7	9.6
잘 모름	25.8	39.0	35.2

친일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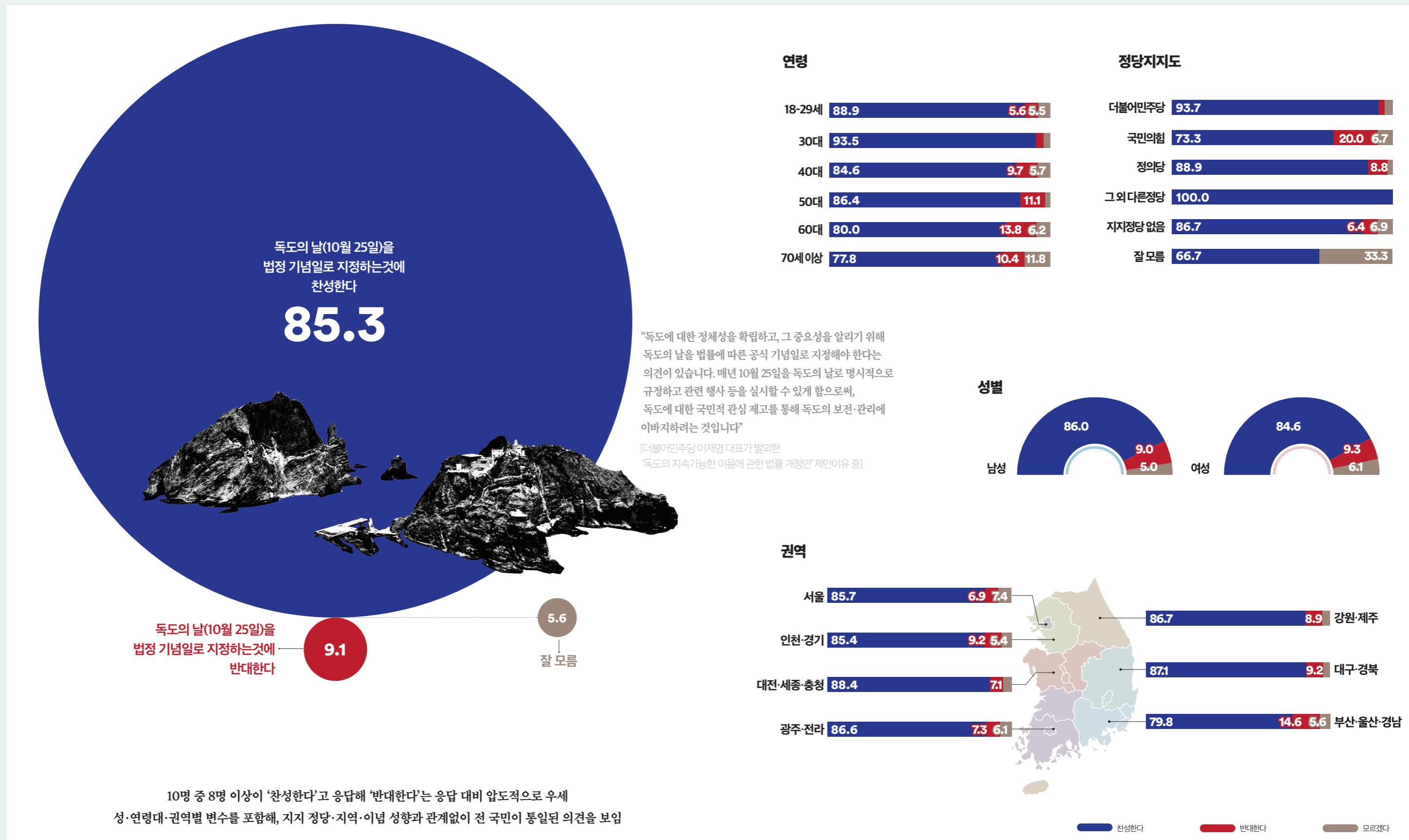
경제적 조치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Q. 10월 25일을 법률에 따른 독도의 날로 공식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근로시간

ARS & CATI / CATI

정치·사회 근로시간 관련 대통령실의 혼선
현안 주 4.5일제 도입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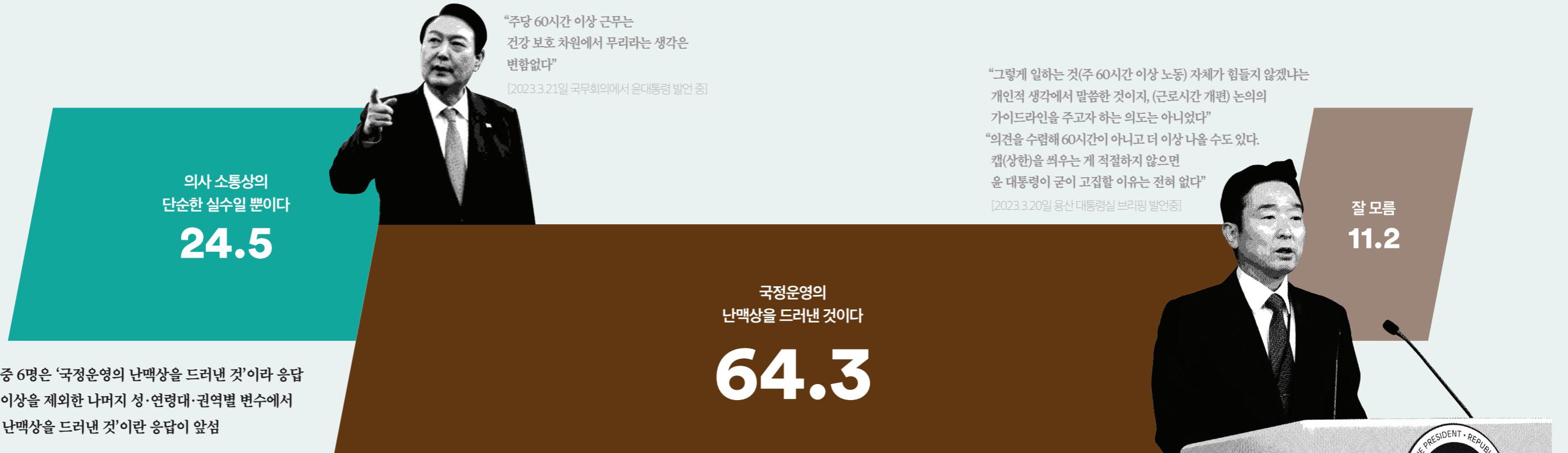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다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36시간 근로, 즉 주4.5일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고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근로시간 관련 대통령실의 혼선

Q.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60시간 이상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두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대통령의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한 다음 두 의견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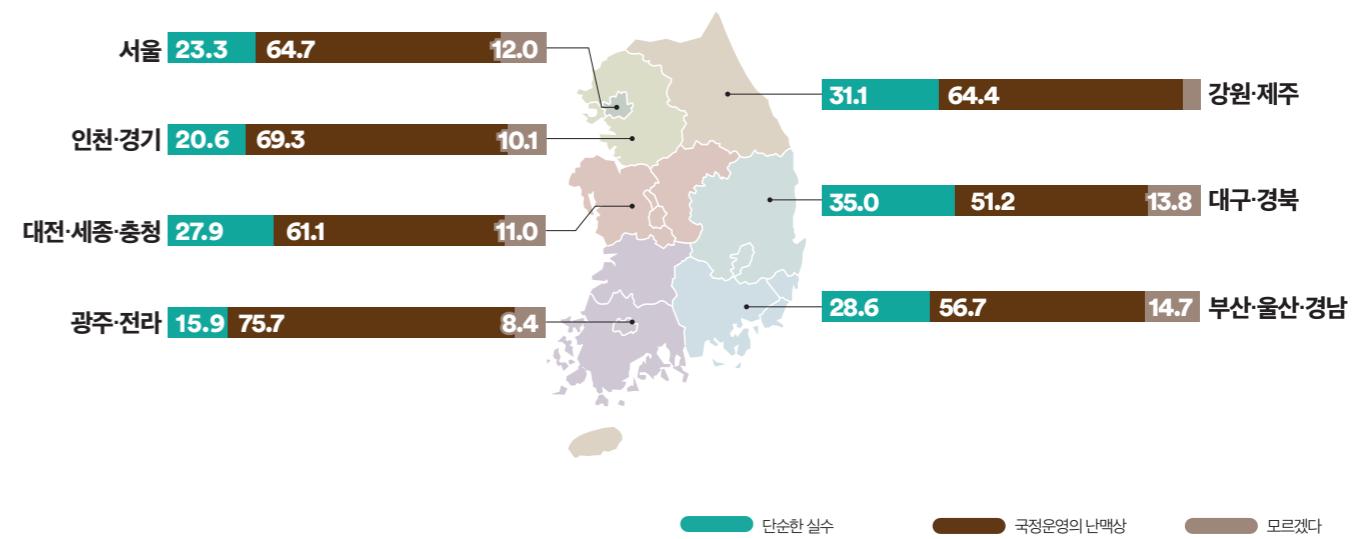
연령

	단순한 실수	국정운영의 난맥상	모르겠다
18-29세	24.7	64.7	10.6
18-29 남성	38.7	51.5	9.8
18-29 여성	9.7	79.0	11.4
30대	14.5	78.6	6.9
40대	14.5	82.4	3.1
50대	23.9	70.8	5.3
60대	37.7	49.5	12.9
70세이상	33.2	33.1	33.7

이념성향

	진보	중도	보수	잘 모름
18-29세	12.5	76.6	6.2	
18-29 남성	17.2	49.3	37.3	
18-29 여성	9.7	18.1	46.0	35.9
30대	85.7	6.2	13.5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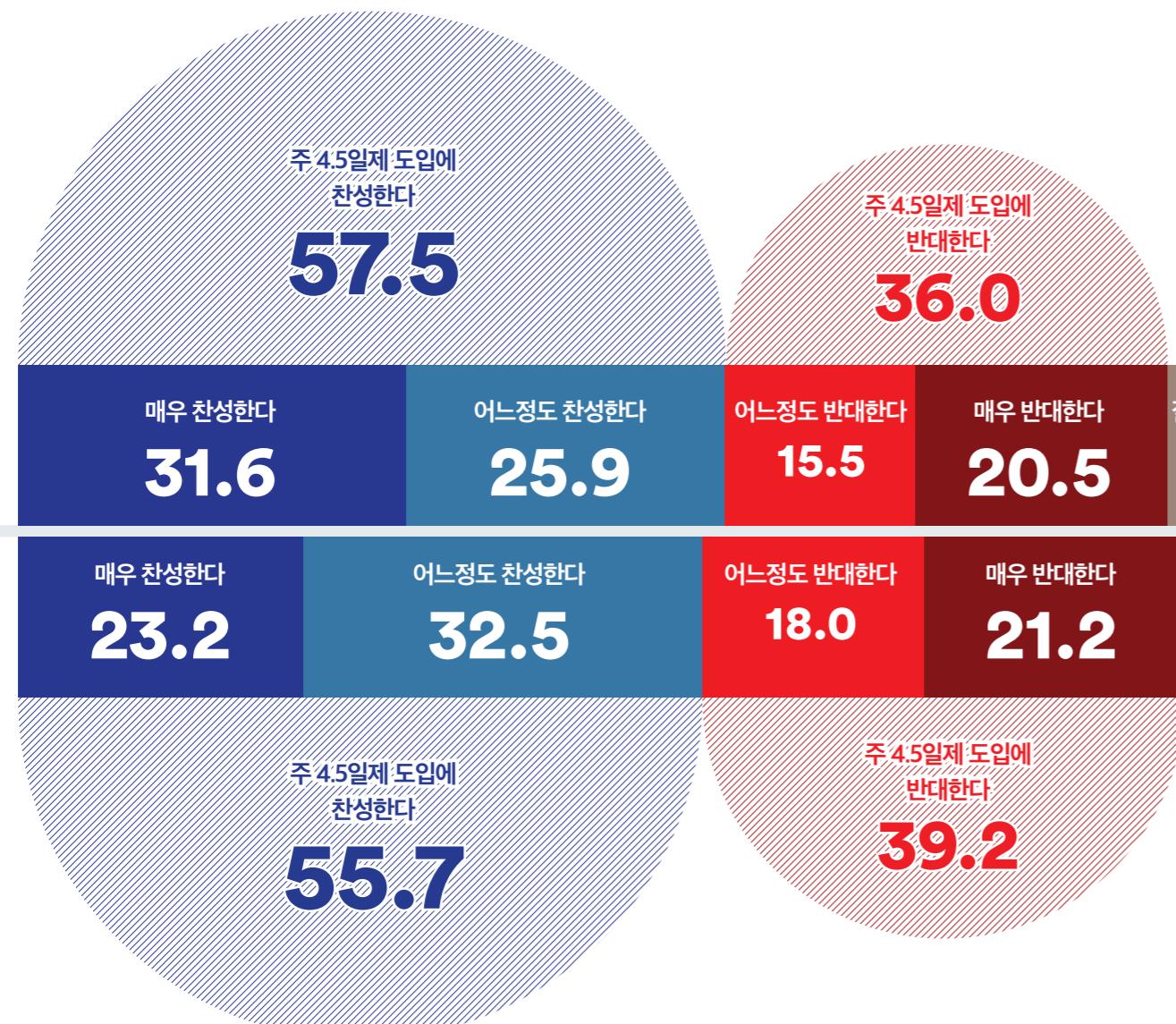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주 4.5일제 도입 찬반

Q.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RS: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앞섰으며,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찬성'응답 우세

CATI: 4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찬성'응답, 70세 이상은 '반대'응답 우세. 6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응답이 소폭 앞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더 많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의견이 더 많음

중도층과 무당층은 10명 중 5명 이상이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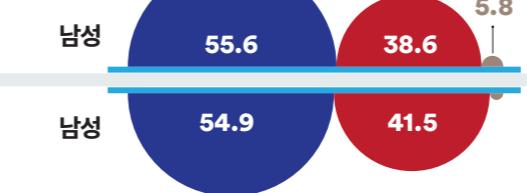
권역

서울	61.1	35.0	3.9
인천·경기	55.4	36.2	8.4
대전·충청·세종	63.2	34.2	2.6
광주·전라	47.7	47.7	4.6
대구·경북	58.3	35.5	6.3
부산·울산·경남	57.4	31.9	10.7
강원·제주	63.8	31.7	4.5

연령

18-29세	55.9	37.0	7.0
18-29 남성	52.2	40.0	7.7
18-29 여성	60.0	33.7	6.3
30대	67.3	28.6	4.1
40대	64.5	31.7	3.8
50대	54.7	39.1	6.2
60대	49.8	41.4	8.8
70세 이상	52.8	37.3	9.9

성별



성별



직업

농임축·어업	42.5	57.5	0.0
자영업	37.4	58.2	4.4
화이트칼라	68.3	30.1	1.6
블루칼라	61.6	35.0	3.4
전업주부	47.4	40.8	11.8
학생	58.3	34.7	7.0
기타	48.6	43.2	8.2
은퇴·무직	42.9	47.4	9.7
밝힐 수 없음	49.3	34.5	16.2

연령

18-29세	66.1	28.4	5.5
18-29 남성	59.1	35.6	5.3
18-29 여성	73.6	20.6	5.8
30대	72.6	26.3	1.1
40대	64.0	35.4	0.6
50대	52.8	43.3	3.9
60대	44.3	49.0	6.6
70세 이상	31.5	53.3	15.2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32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 